

## 개혁주의 성경관

박형용(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명예교수)



우리는 개혁주의 성경관을 논할 때 다음의 몇 가지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들은 성경의 정경성, 성경의 영감성, 성경의 필요성, 성경의 충족성, 성경의 권위 등을 들 수 있다. 개혁주의는 무엇보다도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인정하고 성경이 우리들의 신앙과 생활의 규범임을 믿는다. 성경은 우리들의 신앙과 생활의 길잡이가 되어 우리를 바른 방향으로 인도하고 인간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한다. 우리는 성경 없이는 하나님도 알 수 없고, 하나님이 과거에 무슨 일을 하셨으며, 현재 무슨 일을 하고 계시고, 앞으로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를 도저히 알 수 없다. 스미스(Morton Smith)는 “물론 성경은 신학적 자료들을 조직적으로 발표한 것이 아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구속 계시의 기록이다. 혹은 다른 방법으로 표현하면, 성경은 구속역사의 기록이다. 성경은 하나님이 행하신 그의 구속 행위들의 역사적 기록이며 또한 그가 말씀하신 것의 기록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전능한 행위들뿐만 아니라 하나

1) Morton H. Smith, *Systematic Theology*, Vol. One (Greenville: Greenville Seminary Press, 1994), 39.: “The Bible, of course, is not a systematic presentation of theological data. Rather, it is the record of God’s redemptive revelation. Or, to put it in another way, it is a record of redemptive history. It is the historical record of what God has done—his redemptive acts, and also of what he has said. In other words, we find in the Bible not only the mighty acts of God, but also his own interpretation of those acts.”

님이 그 행위들을 해석하신 내용을 발견하게 된다”<sup>1)</sup>라고 성경의 개념을 정리한다. 성경은 특별한 책이요, 그래서 특별하게 접근해야 한다.

## 1. 성경의 정경성

신학 작업과 신앙생활의 기준을 어떻게 정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우리의 신학 작업과 신앙생활을 위한 규범은 성경이다. 개혁주의는 현재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성경 66권이 교회의 정경인 것을 믿는다. 구약은 BC 1450경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로부터 시작하여 BC 430년경에 기록된 말라기까지 39권이며<sup>2)</sup>, 신약은 AD 50년대로부터 시작하여 AD 90년대까지 기록된 27권으로 신구약 합쳐 66권이다. 구약은 말라기 이후에도 유대인의 문헌들이 계속 기록되었지만(예를 들면, Maccabees서), 이들 기록은 구약의 기록과 동등한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다. 요세푸스(Josephus)는 아닥사스다 I 세(통치기간 BC 465-424)의 때로부터 자신의 때까지 기록된 유대인들의 문헌이 구약과 같은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다<sup>3)</sup>고 설명한다. 위대한 역사가인 요세푸스까지도 당시에 구약 39권의 권위를 인정할 셈이다.

이제 더 복잡하고 우리의 관심을 더 끄는 신약성경 27권이 어떻게 정경으로 인정받게 되었는지를 고찰해 보자. 우리는 “왜 신약 27권만이 정경이고 다른 책은 정경이 될 수 없는가?” “현재 존재하지 않는 자료가 발견되어 정경으로 합류될 수는 없는가?” “현 정경 속에 들어가서는 안 될 책이 정경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닌가?” 등의 질

2) Norman L. Geisler, *A Popular Survey of The Old Testament*, 윤영탁 역 (서울: 엠마오, 1988), 423; Wayne Grudem, *Systematic Theology: An Introduction to Biblical Doctrine* (Grand Rapids: Zondervan, 1994), 55. Geisler와 Grudem은 말라기의 저작 연대를 대략 BC 430-435년으로 잡는다.

3) P. Josephus (born c. AD 37/38), *Against Apion*, 1, 41.: “From Artaxerxes to our own times a complete history has been written, but has not been deemed worthy of equal credit with the earlier records, because of the failure of the exact succession of the prophets.”

문을 해야 한다.

### (1) 정경 결정 기준

이상의 질문들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 학자들은 정경 결정을 위한 기준을 정해서 정경문제를 접근한다. 어떤 기준을 정해서 그 기준에 따라 어느 책이 정경에 속할 수 있다고 정하는 것이다. 정경 설정 문제에 관한 지난 역사를 연구하면 가장 자주 언급되는 몇 가지의 기준이 등장한다.

첫째, 정경 결정을 위해 사도성(Apostolicity)을 기준으로 삼으려는 시도가 있었다. 물론 정경의 기준을 생각할 때 사도성을 배척하거나 정경과 사도성의 밀접성을 부인하지 않는다. 사도들은 주님과 신약성경을 연결하는 고리 역할을 한다. 따라서 과거에 정경성과 사도성을 연결시키려는 시도는 크게 잘못이 없다. 사실상 정경은 사도성의 맥락을 떠나서는 이해할 수 없다. 그러나 사도성을 정경의 기준으로 삼을 때 당장 문제가 되는 것은 히브리서, 마가복음, 유다서, 누가복음, 사도행전, 야고보서와 같은 성경책들이다.<sup>4)</sup> 왜냐하면 이 책들의 저자는 사도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도성이 정경 결정에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완벽한 기준은 되지 못한다.

둘째, 제일 먼저 기록되었다는 고전성(antiquity)의 요소를 기준으로 삼으려는 시도가 있었다. 여기 고전성은 실제로 최초의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가장 오래된 기록들을 정경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고전성으로 말할 것 같으면 고린도전서 5:9에 언급된 바울의 서신이 고린도전서보다 더 먼저 기록되었으나 정경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셋째, 정경 결정 기준으로 보편적 수납(universal acceptance)을

4) N.B. Stonehouse, "The Authority of the New Testament," *The Infallible Word* (Philadelphia: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Co., 1946), 114.

기준으로 삼으려는 시도가 있었다. 즉, 교회의 공적예배에서 보편적으로 읽혀진 것을 정경으로 받으려는 시도이다. 하지만 “열 두 사도의 교훈”(Didache)과 “목양자”(The Shepherd)는 초기에 교회에서 자주 읽혀졌다. 반대로 베드로후서, 요한삼서, 유다서는 초대교회에서 읽혀지거나 설교되어졌다는 근거가 거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 두 사도의 교훈”과 “목양자”는 정경에서 빠졌고 베드로후서, 요한삼서, 유다서는 정경에 들어갔다. 그러므로 공적예배에 읽혀진 것을 정경 결정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불완전한 것이다.

넷째, 영감을 정경 결정 기준으로 삼으려는 시도가 있었다. 정경을 생각할 때 영감은 절대적인 것이다. 왜냐하면 영감 되지 않은 문서가 정경에 포함될 수 없기 때문이다. 영감이 정경 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영감은 기록될 당시에 영감 되었고, 정경 결정은 역사적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 졌다. 영감과 정경 결정이 동시에 발생한 것은 아니다. 고린도전서 5:9과 골로새서 4:16에 언급된 편지를 생각할 때, 비록 바울 사도가 영감 된 상태에서 기록했었지만 그것들이 정경 속에 들어간 것은 아니다. 어떤 이는 정경성과 영감을 일치하는 개념으로 주장하기도 한다.<sup>5)</sup> 그런데 영감된 기록이 정경에서 빠지는 경우도 있는데 영감을 정경 결정 기준으로 삼는 것은 완벽한 기준이 될 수 없다는 뜻이다.

지금까지 언급한 사도성, 고전성, 보편적 수납, 영감성은 모두 중요한 것이요 정경에 포함할 책을 선정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다. 하지

5) Merrill C. Tenney, *New Testament Survey* (Grand Rapids: Eerdmans, 1974), 402: “If these foregoing criteria are not sufficient, what is? The true criterion of canonicity is inspiration.” cf. R. Laird Harris, *Inspiration and Canonicity of The Bible* (Grand Rapids: Zondervan, 1973), 219-235; Harris는 이 부분에서 신약정경의 결정원리를 다룬다. 그의 논조는 영감이 신약정경의 결정원리라는 입장에서 전개된다. 그는 그의 책의 결론 부분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한다. “In our conclusion that the principle of canonicity was inspiration and that the test of inspiration was authorship by prophets in the Old Testament and apostles in the New, we do not need to hold to an absolutely exclusive position.” (292).

만 중요한 질문이 남는다. 인간이 누구이기에 어떤 기준을 정해서 그 기준을 통과하면 교회의 정경에 포함시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그리고 각 기준들은 그 자체로 중요하지만 또한 신약 27권을 아우를 수 있는 정경결정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이다. 그러면 현재 신약 27권의 정경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손에 들려지게 되었는가?

## (2) 하나님이 만드신 산물

하나님은 때때로 인간의 이성과 지혜를 초월하는 일을 하신다. 사실상 하나님의 초자연적 간섭을 빼 놓으면 기독교는 알맹이 없는 껍데기에 지나지 않는 종교로 전락하고 만다.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도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특별한 사건이다.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이 되신 것이다.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100% 인간이신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이 합쳐진 200%의 존재가 아니라 역시 100%의 존재이신 것이다. 여기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신비가 있다. 정경의 경우도 하나님의 지혜의 조화를 보여준다. 인간의 결정과정을 거쳐 생성된 것 같지만 사실상 정경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이다.

우리는 정경이 순전히 우연한 요소에 의해 생성된 “우연한 사실”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 듀 토잇(Du Toit)은 “하나님의 섭리”(providentia Dei)로 정경이 형성되고 편찬되었다고 설명한다. 그는 우리가 정경을 연구할 때 정경형성 과정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를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sup>6)</sup> 웨스트코트(Westcott)는 정경이 결정되게 된 배경을 설명하면서 그 당시 교회회의가 정경에 대해 의논할 때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비중을 둔 요소는 “그 당시 교회들의 자연적인 표

6) A.B. 듀 토잇, 『신약정경론』, 권성수 역 (서울: 엠마오, 1988), 120.

현”이었다고 말한다.<sup>7)</sup> 하나님은 그 당시 교회들의 “자연적인 표현”을 통한 그의 섭리로 역사를 주관하셔서 현재의 27권 정경이 성립될 수 있도록 만드신 것이다. 블랙만(Blackman)은 정경 결정 당시 “교회의 직감은 이미 새로운 문서들을 두 부분으로 나누고 있었으며 말시온(Marcion)으로부터의 자극이나 압력이 필요 없었다. 건전한 가정은 말시온이 두 부분(복음과 사도)으로 나누어져 있는 정경 개념을 창시했다고 생각하기보다 이미 있는 사실들을 그대로 따랐다고 생각하는 것이다”<sup>8)</sup>라고 정리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모든 다른 역사적 연구에서 개인적으로 결단을 내리는 것처럼, 역사가 무엇인지를 인식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역사는 하나님의 모든 선하심에 따라 그의 결정된 뜻이 실천되어지는 것이다. 스톤하우스(Stonehouse)는 “신적인 권위를 가진 성경의 개념 속에는 자존하시며 자족하신 창조주요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사상이 함축되어 있다”<sup>9)</sup>라고 말한다. 즉 하나님은 정경의 형성과정과 무관한 존재가 아니요 역사를 주관하셔서 정경이 정경되게 하심으로 정경에 신적인 권위를 부여하신 것이다. 우리는 정경을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대로 받는 것이다. 사실상 66권의 정확무오하고 상호 일치하는 책들이 수세기에 걸쳐 여러 저자들에 의해 저작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놀랄만한 이적인 것이다. 저자들이 서로 의논하고 기록한 것도 아닌데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기록 과정을 주도하신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또한 66권의 성경이 하나의 책으로 모아진 과정도 어떤 외적인 힘이나 노력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요 순리적인 진전에 의해 모아진 것이다. 이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게도 하셨지만 66권을 정경으로

7) Brooke Foss Westcott, *A General Survey of the History of the Canon of the New Testament* (London: MacMillan and Co., 1870), 12: “its chief value lies in the fact that it is a natural expression of the current opinion of the time.”

8) E.C. Blackman, *Marcion and His Influence* (London: S.P.C.K., 1948), 31.

9) Stonehouse, *op. cit.*, 99.

모아 주셨음을 증거 하는 것이다.

정경의 기원이나 존재는 성경을 정경으로 인정하는 행위와 동일하지 않다. 하나님이 저자이신 점은 하나님의 정경 구성의 행위이지만 (constitutive) 교회의 행위는 반사적 행위인 것이다(reflexive). 교회는 진리의 창시자가 아니요, 진리를 지지하고 나타내도록 봉사하는 것이다. 즉 그것은 본체적(ontic)인 것과 지적(noetic)인 것의 구분이다. 혹은 사실 그 자체와 그것을 인식하는 것의 구분인 것이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구분을 확증하는 것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교회의 행위는 정경 구성의 행위가 아닌 것이다. 마찬가지로 교회회의의 행위도 정경 구성의 행위가 될 수 없다.<sup>10)</sup>

신약정경 27권이 정경으로 결정되어진 그 발전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성령의 특별한 인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않고는 바로 이해할 수가 없다.<sup>11)</sup> 구약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처럼(롬 3:2), 신약의 교회도 주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다.

### (3) 신약정경의 종결

역사적으로 볼 때 정경 결정과정에서 교회의 회의가 어느 정도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신약 정경 27권을 교회가 결정한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라틴 교회는 A.D. 382년에 로마에서 모인 회의에서 신약 27권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그것들만이 신약정경이라고 결정했다. A.D. 393년 히포(Hippo)의 회의와 A.D. 397년 칼타고(Carthage)회의에서도 A.D. 382년 로마회의의 결정을 인준했다. 4

10) William Hendriksen, *I & II Timothy and Titus* (NTC, Grand Rapids: Baker, 1974), 302: 교회회의의 결정에 의해 이 책들이 영감된 성경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요, 그 내용 자체에 의해 즉각적으로 성령이 내주 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증거된 것이다.

11) Stonehouse, *op. cit.*, 139.

세기말에 이르러 같은 결정이 계속 증가되어졌다. 이때로부터 신약 27권이 교회의 정경으로 고정되어졌고 공식적으로 인정함을 받게 되었다.

### ①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심과 신약정경의 종결

교회회의와 인간이 정경 결정에 일정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교회가 정경을 결정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영감 된 자료들을 역사적 과정에 펼쳐 놓으신 다음 통일된 정경으로 모으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쓰시지 않은 것으로 생각할 수 없다. 이런 태도는 하나님께서 각각의 자료들을 주신 목적을 바로 이해하지 못한 잘못된 태도이다. 그런 개념은 하나님이 성경의 저자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개별의 책의 저자이시긴 하지만 유오한 교회가 수집을 하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신약은 신적 저작권을 가진 인간의 명문 선집에 지나지 않은 것이다.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하실 때도 인간저자들을 영감시켜 잘못 없게 기록하셨을 뿐만 아니라, 기록된 성경들을 정경으로 확정하는 과정에도 역사의 주인으로서 역할을 하신 것이다.

### ② 예수님의 구속 사역의 단회성과 신약 정경의 종결

성경은 어떤 책인가? 성경은 언어로 기록된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시작과 진행과 종말을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소유한 정경인 특별계시는 역사적 과정으로 발생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서 그 종점에 도달한 것이다. 모든 신약계시는 역사상에 존재하셨던 예수님과 연관을 가지고 있다.<sup>12)</sup> 그런데 예수님의 구속 사역은 한번으로 족하다(히 9:26).

12) D.A. Carson, Douglas J. Moo, and Leon Morris, *An Introduction to the New Testament* (Grand Rapids: Zondervan, 1992), 496.



여기서 강조가 되어야 할 사실은 우리가 특별계시, 역사적 과정, 그리스도의 단회적 사역을 함께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들이 특별계시를 말씀과 사건의 관계, 세기적인 특성, 그리고 계시의 언약적인 특성을 함께 고려하면, 그리스도의 승귀와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사도들의 증언 이래 계시가 멈추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나님은 교회의 기초를 놓으신 때로부터 특히 그리스도의 승귀로 부터 그가 다시 재림할 때까지(고전 1:17) 계시의 역사를 종결시키신 것이다. 그리고 사도시대 이후 교회시대에는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이 점진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는 것이다. 머레이(John Murray)는 이를 가리켜 특별계시의 성취와 적용이라고 표현한다. 요점은 그리스도의 단회적인 사역의 특성과 특별계시의 종료는 맞물려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스도의 사역의 단회적인 특성을 포기하면, 특별계시의 종료를 주장하는 입장에 문제가 생기며, 특별계시의 종료를 양보하면, 그리스도의 사역의 단회적 특성이 큰 타격을 받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정점으로 하는 계시를 마지막으로 이제는 더 이상 계시를 주시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제는 28권 짜의 성경이 기록 될 이유가 전혀 없다.

## 2. 성경의 영감성

개혁주의는 성경의 영감을 말할 때 단순히 사상만 영감 되었다는 사상영감(dynamic inspiration)이론을 배격하고, 언어로 기록된 성경의 모든 내용이 영감 되었음을 말하는 축자영감(verbal inspiration)을 믿으며, 성경 66권의 일부만 영감 되었다고 주장하는 부분영감(partial inspiration)이론을 배격하고, 성경 66권 전체가 영감 되었다고 가르치는 만전(완전)영감(plenary inspiration)을 받아들이며, 그리고 인간 저자들이 마치 타자기처럼 하나님이 부르는 것을 받아

쓰는 역할만 했다고 주장하는 기계적 영감(mechanical inspiration) 이론을 배격하고, 하나님이 그의 성령으로 성경저자들을 사용하시되 그들의 성격과 지식과 경험 등 인간 저자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사용하시면서도 잘못 없게 기록하게 하셨다고 가르치는 유기적 영감(organic inspiration)을 받아들인다. 축자영감과 만전영감은 유기적 영감을 바로 터득하면 자연스럽게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유기적 영감만 다루기로 한다.

### (1) 유기적 영감

개혁주의는 구약 39권과 더불어 신약성경 27권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 그리고 개혁주의는 성령이 인간 저자를 영감시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실 때 유기적인 방법을 사용했다고 믿는다. 여기서 헨드릭센(Hendriksen)의 말을 빌려 유기적 영감을 설명해 보자. “성경의 영감은 유기적이지 기계적이지 않다. 이 말은 영감을 생각할 때 성경저자를 한 역사적인 장면에도 달하도록 돕는 많은 행위를 떠나서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다. 성경저자를 특정한 때와 장소에서 태어나게 하고, 특별한 성품을 소유하게 하고, 특별한 교육을 받게 하고, 특정한 경험을 하게 하고, 어떤 사건을 접하고 그 의미를 이해하게 하는 데 성령이 그 인간의 의식을 준비하신 것이다. 그리고 성령은 그가 글을 쓰도록 감동시키는 일을 하시며 글을 쓰는 과정에서 이전에 경험한 모든 행위와 철저하게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인간 저자의 마음에 그의 위치의 고하와 연령의 다소, 종족의 구별 없이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는 데 가장 적절한 도구인 언어와 문체(현 성경)를 제시해 주셨다. 그러므로 성경의 모든 말씀이 진정으로 인간저자의 말임과 아울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다.”<sup>13)</sup> 이런 유기적 영감의 성격과 성경저자들의 교육

및 성품, 그리고 경험 등을 성경 기록과 연관시켜 고찰할 때 마태에게 마태복음을 쓰게 하고, 누가에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쓰게 하며 또한 구속사역의 해석을 강조하는 바울서신들을 마태나 마가나 누가에게 쓰게 하지 않고 바울로 하여금 쓰게 하신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보는 것이다. 신약 정경에 포함된 27권의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이 인간 저자들을 유기적으로 영감시켜 언어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 (2) 신정통주의 영감론

여기서 신정통주의의 성경에 대한 견해를 일별하는 것이 개혁주의 영감론을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줄 안다. 신정통주의는 성경관에서 자유주의와 정통주의의 중간쯤 되는 입장을 취한다. 신정통주의는 성경이 인간의 종교적 의식의 산물이라고 생각하는 자유주의의 견해를 따르지 않는다. 그러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정통주의의 견해도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정통주의는 성경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 대한 인간의 증거라고 믿는다. 계시는 역사의 한 시점에서 발생하여 우리에게 성경 본문으로 전수되는 것이 아니요 인간의 실존적 반응을 수반해야만 하는 현재의 경험이라고 믿는다.<sup>14)</sup>

따라서 신정통주의는 성경 무오설을 받을 수가 없다. 성경 기사에는 잘못이 있을 수 있으며 약간의 잘못이 있어도 신정통주의 입장에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신정통주의는 인간 실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객관적 계시에 대해서는 특별히 강조하지 않는다. 신정통주의가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성경 계시의 객관성을 인정하지 않는다.<sup>15)</sup> 칼 바르트(K. Barth)에

13) W. Hendriksen, *Exposition of the Pastoral Epistles*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74), 302; H. Bavinck, *Gereformeerde Dogmatiek* (Kampen: J.H. Kok, 1906), 464.

14) 박형용, 『성경해석의 원리』 (수원: 합동신학대학원출판부, 2014), 130.

대한 리드(Reid)의 평가가 이를 잘 설명한다.

“성경 앞에 서 있을 때 우리는 권위 자체 앞에 서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가 성경을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 자신이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사실 앞에 서는 것이다. 성경의 권위는 성경을 소유한 것에 있지 않고, 성경은 하나님 자신이 주신 선물도 아니다. 성경이 권위 있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그것을 취하셔서 그것을 통해 말씀하시기 때문이다.”<sup>16)</sup>

여기서 신정통주의 지도자였던 바르트(Karl Barth)와 미국 필라델피아 제10장로교회 목사였고 이터니티(Eternity) 편집장이었던 반하우스(Donald G. Barnhouse)와 면담한 내용을 통해 신정통주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바르트의 성경관과 계시관을 알아보도록 하자.<sup>17)</sup>

반하우스: 당신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믿으십니까?

바르트: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하나님이시며, 말씀이십니다.

반하우스: 그러나 지상에 계셨던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믿으십니까?

바르트: 나는 그가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그는 살아 계십니다.

반하우스: 그러면 당신은 우리 주님이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되 단순히 영적으로가 아니라 육체적으로 살아나신 육체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15) Cf. Karl Barth, *Church Dogmatics*, Vol. 1 (*The Doctrine of the Word of God*), Part 1 (Edinburgh: T. & T. Clark, 1969), 123-124.: “The Bible is God’s Word so far as God lets it be His Word, so far as God speaks through it,”..... “The Bible is God’s Word’ is a confession of faith, a statement made by the faith that hears God Himself speak in the human word of the Bible,”(123); “The Bible therefore becomes God’s Word in this event, and it is to its being in this becoming that the tiny word ‘is’ relates, in the statement that the Bible is God’s Word,”(124)

16) J. K. S. Reid, *The Authority of Scripture* (London: Methuen, 1957), 221, Reid는 칼빈까지도 성경과 하나님 말씀을 직접적으로 동일시하지 않고 단순히 간접적인 동일성만 주장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칼빈은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분명히 한다 (J. Calvin, *Institutes*, Book 1, Chap. VII, 5).

17) *Eternity* (April, 1984): 18-21, 박형용, 『성경해석의 원리』, 130-131.

바르트: 나는 그것을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반하우스: 당신은 인간이 오직 중생의 초자연적인 사역,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의 응답으로 새 생명을 소유하여 구원 얻음을 믿습니까?

바르트: 그렇고말고요. 나는 내 신학이 바울 특히 로마서에 근거하고 있음을 압니다. 이 새 생명은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인격을 소유하신 분이십니다. 진정한 기독교는 삼위일체의 신성 밖에서는 이해될 수 없습니다.

반하우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당신의 신학적 입장이 많은 비평을 받아왔는데 그 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성경 밖에서 말씀하셨다고 믿습니까?

바르트: 아니요, 성경을 떠나서는 계시가 없습니다.

반하우스: 그러면 당신은 셰익스피어(Shakespeare)가 영감된 것처럼 성경의 저자들이 영감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같은 의견이 아니시군요?

바르트: 노(No), 노, 노, 성경이 신적 계시의 유일한 자료입니다.

반하우스: 바르트 박사님, 이제 우리들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당신은 성경이 계시의 유일한 자료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성경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계시라고 믿습니까?

바르트: (바르트 박사는 성경을 손에 들고 성경의 한 페이지를 편 다음) 만약 성경의 한 부분이 내게 말씀하시면, 그것은 내게 하나님의 말씀 (God's Word)입니다. (그 후 다른 페이지를 가리키면서) 만약 이 부분이 내게 말씀하지 않으시면, 그것은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반하우스: 그러나 박사님, 당신에게는 말씀하지 않았던 그 부분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바르트: 그렇고, 말고요, 그 경우 그것은 당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반하우스: 당신은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그 부분이 어느 날 당신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고 믿으십니까?  
바르트: 물론이지요. 성경 안에 있는 어느 것이든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이 교회의 책이라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반하우스: 성경 밖의 어느 것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는 없을까요?  
바르트: 아니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의 유일한 자료입니다.

바르트는 폐쇄된 우주관을 갖고 있지 않았다. 이상의 대화는 그가 성경의 독자영감이나 유기적 영감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도 명백하게 증거한다. 그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의 유일한 자료라고 말하므로 성경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지만 성경의 내용이 자기에게 말할 때에만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고 말하므로 성경이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지 못한 것이다.

### (3) 성경 영감에 대한 성경적 증거

우리는 성경이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는 명백한 증거를 디모데후서 3:16과 베드로후서 1:20-21에서 찾을 수 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딤후 3:16, 개역개정).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벧후 1:20-21, 개역개정)<sup>18)</sup>

18) 딤후 3:16과 벧후 1:20-21의 해석은 본인의 저서 『성경해석의 원리』(수원: 합동신학대학원출판부, 2014), 183-197까지의 내용을 수정 요약한 것임을 밝혀 둔다.

## ① 디모데후서 3:16

먼저 디모데후서 3:16에 나타난 문맥을 살펴보면 바울은 성경의 실제적이고 기능적인 가치를 디모데에게 가르친다.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그가 진리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거짓 교사들보다 얼마나 더 유익한 위치에 있는지를 상기시킨다. 디모데는 어릴 적부터 성경을 배우고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딤후 3:13-15). 그래서 바울은 성경의 본질을 설명한 내용을 소개함으로 성경이 최고의 가치를 소유하고 있다고 말한다(딤후 3:16).

여기서 성경 영감에 관한 본문의 문장 구성에 관해 잠시 생각하는 것이 유익하리라 생각한다. 우리 개역개정 번역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sup>19)</sup>로 되어 있다. 그런데 헬라어 원본은 이 표현이 세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는 이 본문에 대해 몇 가지의 질문을 할 수 있다.

첫째, 바울이 본문에서 “성경”(graphe: grafhv)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을 때 어떤 책들을 염두에 두고 사용했는가. 신약에 사용된 “성경”은 일차적으로 구약을 가리킨다. ‘그라페’라는 용어는 구약의 통일성을 강조하며 구약 전체를 가리키는 전문적인 의미로 신약에서 사용된다(마 21:42; 22:29; 눅 4:21; 24:27, 32, 45; 요 2:22; 10:35 등). 그런데 바울은 본 구절에서 그라페를 관사 없이 사용한다. 그라페가 바울 서신에서 관사 없이 사용된 예는 그렇게 흔한 예가

19) 그러나 헬라어는 pa'sa grafhv qeovpneusto”의 세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

20) Smith가 편집한 Greek-English Concordance는 grafhv가 신약 전체에 51회 사용되는 것으로 집계한다. 그 중에 막 15:28에 1회 사용된 것도 포함되었는데 막 15:28은 헬라어 및 한글 개역과 다른 번역판에 삽입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막 15:28이 후대의 사본에만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cf. J.B. Smith, *Greek-English Concordance* (Scottsdale, PA: Herald Press, 1947), p. 74. 그리고 바울 서신에는 grafhv가 14회 나타나는데 모두 정관사와 함께 나타나고 롬 1:2; 16:26; 딤후 3:16에만 정관사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이들 구절에 나타난 표현의 전문적인 특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See, W.F. Arndt and F.W. Gingrich, *A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and Other Early Christian Literature*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57), 164.(gramma, 2c 부분 참조)

아니다.<sup>20)</sup> 바울 서신에서 그라페가 정관사 없이 사용된 로마서 1:2; 16:26; 디모데후서 3:16 중 로마서 1:2과 16:26은 정관사는 없지만 문맥에 비추어 볼 때 그라페가 구약을 한정적으로 가리키고 있음에 틀림없다. 하지만 디모데후서 3:16의 경우는 약간 다르다. 디모데후서가 바울이 기록한 마지막 서신이요, 이 구절이 성경 영감에 관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바울이 본 구절에서 정관사 없이 그라페를 사용한 것은 특별한 의도가 있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라페가 관사 없이 사용되면 그라페에 질(質)적인 의미가 부여된다.<sup>21)</sup> 즉 그라페의 질을 소유한 모든 기록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는 사실을 함축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것이다. 디모데후서 3:16에서 정관사 없이 “그라페”를 사용한 것은 일차적으로 구약뿐만 아니라 그 당시 이미 기록된 신약이나, 기록의 과정에 있는 문서들도 “그라페”에 속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본문에 나타난 “모든 성경”이라고 할 때 “모든”(pasa: pa’sa)의 뜻이 무엇인가? “파사”를 집합적인 개념으로 생각하여 전체(all)를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하는 해석과 개별적인 개념으로 생각하여 전체(every)를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하는 해석이다. 집합적인 개념의 전체나 개별적인 개념의 전체가 결과적으로 같은 전체를 가리키기 때문에 어느 쪽을 택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sup>22)</sup> 그러나 어떤 이들이 “모든”을 개별적인 개념으로 생각하여 성경의 어느 부분은 영감 되고,

21) Maximilian Zerwick, *Biblical Greek* (Rome: Biblical Institute Press, 1985), 57. (sect.176, 177)참조. Zerwick은 딤후 3:16의 경우에 대해 “Hence in pa’sa graphv qeovpneusto” 2 Tim 3, 16 it is correct to insist on the absence of the article as showing that inspiration belongs to Scripture *as such* (“all Scripture...”), whereas with the article (“all the scripture...”) it would simply register the fact that the existing Scripture was inspired, without establishing a formal principle” (61–sect. 189)라고 말한다.

22) 워필드 (B.B. Warfield, *The Inspiration and Authority of the Bible*, Philadelphia: The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Company, 1948. 134)는 본문을 개별적인 개념으로 취한다. 그는 본문을 “Every Scripture, seeing that it is God-breathed, is as well profitable”로 번역하여 성경의 모든 구절이 하나님의 창조적인 호흡의 산물임을 밝힌다.



또 어느 부분은 영감 되지 않았다는 사상을 인출해 내기 때문에<sup>23)</sup> 본문의 경우 “모든”을 집합적인 개념의 전체를 가리킨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성경의 어떤 저자도 성경으로 분류된 어떤 책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지지 않았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다.<sup>24)</sup> 본문은 성경의 모든 부분 전체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목적을 이루기에 유익하다고 말하는 것이다.

셋째, 본문에서 사용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theopneustos: qeovpneusto)이란 표현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먼저 데오프뉴스토스가 문장 구성상 서술적 위치에 있는지 혹은 한정적 위치에 있는지를 밝히는 것이 유익하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이 서술적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볼 때 본문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되었다”<sup>25)</sup>로 번역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을 한정적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볼 때, 본문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모든 성경”으로 번역해야 한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이 한정적 위치에 있으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이 성경을 직접 수식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을 한정적으로보다는 서술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그 이유는 첫째, 데오프뉴스토스(theopneustos)가 뒤에 따라 나오는 오펬리모스(ophelimos: wjfevlimo)와 “그리고”(kai: kaiV)로 연결되어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데오프뉴스토스를 한정적으로 해석하면 오펬리모스도 한정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그러나 본문에서 오펬리모스를 한정적으로 해석하면 본문의 의미가 잘 통하지 않는다. 둘째, 데오프뉴스토스를 한정적으로 생각하여 본문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모든 성경”이라고 번역하면 그 의미 속에 성경의 어떤 구절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지 않

23) 박형용, 『복음비평사』 (서울: 성광문화사, 1985), 25 참조. L. Berkhof, *Manual of Christian Doctrine* (Grand Rapids: Eerdmans, 1973), 43-44.

24) I. Howard Marshall, *Biblical Inspiration* (Grand Rapids: Eerdmans, 1983), 25.

25) “All Scripture is God-breathed” (N.I.V.). 혹은 “All Scripture is inspired by God.” (N.A.S.B.)

은 것이 있을 수도 있다는 사상을 함축하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성경 66권 중 어느 부분만을 따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모든 성경”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이 한정시키고 있는 부분만이 “모든 성경” 속에 내포되고 그 부분만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다는 뜻이다. 이상과 같이 문장 구조로 보나 그 의미가 함축하고 있는 내용으로 보나 본문의 데오프뉴스토스는 서술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더 바른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의 뜻은 무엇인가? 이 용어는 신약 성경에서 한번 등장하는 단어(hapax legomenon)이다. 여기서 우리가 질문해야 할 것은 데오프뉴스토스가 능동적으로 사용되었느냐 아니면 수동적으로 사용되었느냐이다. 이 용법을 성경의 영감과 연결시키면, 능동적인 해석은 “성경이 영감시키고 있느냐”(Scripture is inspiring.)가 되며, 수동적인 해석은 “성경이 영감되었느냐”(Scripture is God-breathed.)로 된다. 이 문제는 얼핏 보기에 큰 문제가 없는 듯싶다. 하지만 데오프뉴스토스를 능동적으로 취하느냐, 수동으로 취하느냐에 따라 성경 영감에 대한 견해가 달라지게 된다. 만약 데오프뉴스토스를 능동으로 취하면 성경은 단지 영감의 도구나 수단 역할을 할 정도에 머물러 궁극적인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 그럴 경우 성경의 기원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고 성경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행위에 관심이 집중되는 것이다. 반대로 데오프뉴스토스를 수동<sup>26)</sup>으로 취하면 성경은 궁극적인 의의를 소유하게 되며 성경이 신적 기원을 가지고 있음을 명백히 하는 것이다. 이 경우는 하나님께서 숨을 내뿜으신 행위의 산물로서 성경의 본문을 생각하는 것이다. 데오

26) 일반적으로 동사적 형용사의 어미가 -to”로 끝나면 수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ajgaphtov”의 경우도 “사랑 받는(beloved)”의 뜻으로 사용된다(마 3:17). 워필드(Warfield)는 -to”와 qeov”의 합성어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행위로 산출된 결과를 나타내며 수동의 의미로 사용된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 예로 qeovgrapto”, qeovdoto”, qeodivdakto”, qeomavkaristo” 등 많은 유사한 단어를 제시한다. 그는 이런 종류의 합성어인 86개 중 75개가 하나님에 의해 산출된 결과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75개의 예를 제시한다. cf. B. B. Warfield, op.cit., 281-282.

프뉴스토스는 “하나님의 내뿜는 호흡”과 “그라페”와의 본질적 관계를 가리키고 있다.<sup>27)</sup> 이와 같은 신비로운 특성 때문에 성경은 다른 모든 기록으로부터 구별이 되는 것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적인 내뿜는 호흡에 의해 생성된 산물이다.<sup>28)</sup> 하나님의 이런 행위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문서가 되는 것이다. 모든 성경의 기원과 그 내용이 하나님의 내뿜는 호흡, 즉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기인된 것이다. 따라서 성경은 그 기원이 바로 하나님 자신으로부터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성경 본문의 저자이신 것이다.

지금까지 연구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이란 의미를 요약하면 현재 교회가 수납하고 있는 66권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창조적인 내뿜는 호흡의 활동으로 나타난 산물로서 하나님이 기록하시기를 원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 ② 베드로후서 1:20, 21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벧후 1:20-21, 개역개정)

본문은 디모데후서 3:16과 함께 성경 영감을 다룰 때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구절이다. 본문은 예언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강조하는 구절이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성경 영감에 관한 몇 가지 진

27) G. C. Berkouwer, *Holy Scripture* (Grand Rapids: Eerdmans, 1975), 140.

28) 영어의 Inspiration은 라틴 Vulgate: Omnis scriptura divinitus inspirata의 inspirata에서 왔다. 그런데 이 용어는 “숨을 뿜어 들인다”는 개념을 함축적으로 가지고 있다. 하지만 헬라의 본 뜻은 “숨을 뿜어 밖으로 낸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한글 개역 성경의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이란 표현은 이런 오해를 해결할 수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된다. 영어의 경우 N.I.V.의 신약판이 1973년에 나오기까지는 *geovpneumato*를 God-breathed로 번역하지 않고 “is given by inspiration of God” (A.V.)나 “is inspired by God” (N.A.S.B.) 등으로 번역했다.

리를 캐낼 수 있다.

첫째, 베드로가 “성경의 모든 예언”이라고 말했을 때 그 범위가 어느 정도 되는가? “성경의 모든 예언”(pasa propheteia graphes: pa’sa profhteiva grafh”)이 단지 성경 내에 있는 예언만을 가리키고 있는가 아니면 전체 성경을 포함하는가? 물론 베드로가 염두에 두고 있는 성경은 일차적으로 구약의 내용임에 틀림없다. 그런데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성경의 가치가 아니요, 성경의 신뢰성과 확실성이다.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1:19에서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라고 말한 사실은 본문이 성경의 신뢰성을 강조하고 있음을 증거 하는 것이다. 본문이 성경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면 베드로가 본문에서 예언을 성경의 다른 부분과 비교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성경의 다른 부분과 구별하여 예언의 가치를 더 강조하고 말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이와 같은 해석은 문맥에 나타난 의미와 잘 통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본문은 성경의 신뢰성과 확실성을 강조하는 것이며 따라서, “성경의 모든 예언”은 구약의 예언 부분만을 가리키지 않고 구약 전체를 가리킨다고 생각하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본문에서 성경이 될 수 없는 것과 성경이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한글 개역 개정판에 나온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개역개정)<sup>29)</sup>에 대해 두 가지의 견해로 집약된다. 첫째 해석은 한글 개역개정판과 같이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라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다.<sup>30)</sup> 이 번역은 독자의 행위를 염두에 두고 번역한 것이다. 이 번역의 의미는 거짓 선생들이 전통적인 서클에서 인정한 해석을 따르지 않고 사사로이 임의

29) pa’sa profhteiva grafh” ijdiva” ejpiluvsew” ouj givnetai.

30) “no prophecy of Scripture is a matter of one’s own interpretation.”(N.A.S.B.); 새 번역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롭게 해석되어서는 안됩니다”라고 번역했고, 공동번역은 “성서의 어떤 예언도 임의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로 번역하여 한글 개역이나 개역개정판과 같은 입장을 견지한다; Arndt and Gingrich, *op. cit.*, 370.

대로 해석하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 잘못을 공격하기 위해 성경을 해석할 때는 사사로이 해석할 것이 아니요 성령에 의해 인도된 정통 교회의 해석을 따라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본문을 이해하는 것이다. 둘째 해석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라는 의미로 본문을 이해하는 것이다.<sup>31)</sup> 이 번역은 성경저자를 염두에 두고 번역한 것이다. 베드로는 여기서 성경의 신적 기원에 대해 말하고 있다.<sup>32)</sup> 본문의 에피류세오스(epiluseos: ejpiluvsew)의 용법은 성경의 신적기원을 지지한다. 아퀼라(Aquila)의 역본에서 요셉이 술 말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할 때 에피류시스(ejpivlusi)/ejpiluei'n)를 사용한다(창 40:8).<sup>33)</sup> 그런데 문맥에서 꿈의 해석은 하나님이 주신 사실을 명백히 한다. 허마스(Hermas)도 에피류시스를 하나님이 주신 해석을 가리키는 것으로 사용한다.<sup>34)</sup> 그리고 선지자들의 예언의 경우, 선지자들은 먼저 이상(암 7:1; 렘 1:11,13)이나 꿈(슥 1:8; 단 7:2)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그 후에 해석까지도 받은 것이다. 에스겔 37:1-10은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마른 뼈에 대한 이상을 주시고, 에스겔 37:11-14은 하나님께서 그 이상에 대한 해석을 직접 해주신다. 다니엘 8:1-14까지에 나타난 다니엘이 을래 강변에서 받은 이상을 하나님이 직접 해석해 주신다(단 8:15-27). 그러므로 참다운

31) “no prophecy of Scripture came about by the prophet’s own interpretation” (N.I.V.). 이렇게 번역할 경우 본문의 *ιδίαις*를 “선지자 자신”(the prophet’s own)으로 해석해야 하는 문법적인 어려움이 뒤따른다. 둘째 해석을 지지하는 학자는 Simon J. Kistemaker, *Peter and Jude*, (Grand Rapids: Baker, 1987), 271-272, Michael Green (*2 Peter and Jude: Tyndale New Testament Commentaries*, (Grand Rapids: Eerdmans, 1987), 100-103, R.H. Strachan, *The Second Epistle General of Peter: The Expositor’s Greek Testament*, Vol. V (Grand Rapids: Eerdmans, 1980, 132), 그리고 Richard J. Bauckham, *Jude, 2 Peter: Word Biblical Commentary*, vol. 50. (Waco: Word Books, 1983), 230-235 등이다.

32) 벵후 1:20의 *givnetai*(to come about)는 기원을 의미하고 있다. 그러나 *ouj*와 함께 사용함으로 성경이 선지자 자신들로부터 온 것이 아님을 증거하고 있다. 그리고 *ejpiluvsew*”는 정의를 위한 소유격(Genitive of definition)이지 기원을 위한 소유격(Genitive of origin)이 아니다. 따라서 해석된 것은 선지자 자신들의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cf. Strachen, *op. cit.*, 132.

33) Ardnt and Gingrich, *op. cit.*, 295.

34) Hermas, *The Shepherd* (Parable 5,3:1,2; 5,5:1; 5,6:8; 8,11:1; 9,11:9).

예언은 그 해석이 선지자 자신의 해석이 아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해석이어야 한다.

여러 학자들이 에피류시스를 번역할 때 “해석” 이외의 다른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많은 시도를 했다. 스펜스(R.M.Spence)는 에피류시스를 “계시,” “나타냄”(revelment)으로 번역했으며<sup>35)</sup>, 안드리(E.R. Andry)는 “충동”(prompting)으로 번역했고<sup>36)</sup>, 스피타(F. Spitta)는 분해 (dissolution)로 해석했으며<sup>37)</sup>, 루오(J. Louw)는 “영감”(inspiration)과 “황홀경”(ecstasy)으로 번역했다.<sup>38)</sup> 만약 “에피류세오스”(폰 것)가 “영감”의 뜻이 있다면 본문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운 영감(황홀경)으로 되는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벧후 1:20, 21)로 문맥의 앞뒤가 잘 어울리는 것이다. “이디아스 에피류세오스”를 “선지자 자신의 영감”으로 번역하면 본문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선지자 자신의 영감으로 나온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가 되어 성경의 신적 기원을 명백히 하며, 문맥의 앞뒤 역시 잘 일치하는 것이다.

베드로는 성경이 영적인 전문가들의 권면이나 통찰력이나 조언에 지나지 않는 그런 책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다. 심지어 베드로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영감 없이 해석한 내용이 있다면 그것도 성경이

35) R.M. Spence, “Private Interpretation”, *Expository Times* 8 (1896-1897), 285-286.

36) C. F. Andry, “Barnabae Epist. Ver. DCCCL.”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70(1951), 233-38

37) A.C. Thiselton, “Explain,” *The New International Dictionary of New Testament Theology*, vol.1 (Grand Rapids: Zondervan, 1975), 578 참조. Spitta는 벧후 1:20을 “No prophecy of Scripture is of such a kind that it can be annulled.”로 번역했다.

38) J. Louw, “Wat wordt in II Peter 1:20 gesteld,” *Nederlands Theologische Tijdschrift*, 3(1965), 202-212.

아니라고 말한다.<sup>39)</sup> 성경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다. 이처럼 본문은 성경이 될 수 없는 것을 언급한 후,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베드로후서 1:21)이라고 성경이 무엇인지를 밝힌다. 본문은 “사람들이 ... 말한 것”<sup>40)</sup>이 성경이라고 말함으로써 성경 기록에 있어서 사람들의 역할을 배제하지 않는다. 그러면 성경이 다른 책들과는 어떻게 다른가? 본문에서 성경은 “인간 저자들이 자신의 생각이나 해석을 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말한 것”<sup>41)</sup>이라고 강조한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말한 것과 기록한 것이 동일함을 볼 수 있다. 즉 기록된 성경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말한 것 자체인 것이다(엡 3:3,4). 본문은 성경의 근원이 하나님임을 명백히 한다. 베드로는 사람이 성경의 기원이 아님을 밝히고 곧이어 하나님이 성경의 기원임을 명백히 하는 것이다.

셋째,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성경을 계시해 주셨는가? 본문에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이라고 할 때의 “받은”이 그 방법을 제시해 준다. 베드로는 본문에서 “받은”(페로메노이)을 특별하게 사용한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이 단어를 여기에 의도적으로 사용했음에 틀림없다. 본문에서 사용된 페로메노이(pheromenoi: ferovmenoi)가 성령의 사역과 관계되어 사용될 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다른 용례를 통해 추정하는 것이 유익하다. 누가는 오순절 성령강림 때 성령이 임하는 모습을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묘사한다(행 2:1-4). 여기 “급하고 강한 바람”이라고 할 때의 “급하고”(pheromenes)는 베드로가 사용했던 “받은”과 같은 용어이다. 이는 제자들을 성령으로 가

39) L. Berkhof, *Principles of Biblical Interpretation* (Grand Rapids: Baker, 1952), 45: “It (The whole O.T.) is not of private interpretation, i.e. not the result of human investigation, nor the product of the writer’s own thinking.” Italics original.

40) ejlavhsan ... anqrwpoi.

41) ajpov qeou’는 인간 저자들의 말에 특이한 신뢰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득 차게 하기 위하여 성령이 강한 바람처럼 임한 것을 묘사하고 있다. 제자들은 성령에 의해 완전히 조종된 것이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은 성령의 조종을 완전하게 받으면서도 정상적인 인간의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베드로후서 1:21에서 언급된 성령의 사역은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볼 수 있는 성령의 인도하는 사역 이상의 뜻을 가지고 있다. 본문의 “받은”(페로메노이)은 성경 저자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운반하는 운반자임을 명시하는 것이다. 베드로는 본문에서 성령이 제 1차적인 저자요 인간 저자들이 제 2차적인 저자임을 분명히 한다. 키스터마커는 “성령은 성경을 만들기 위해 도구들을 사용하지 않고 인간들을 사용하셨다. 성령은 인간들을 사용하시되 그들의 죄와 잘못에서부터 보호하시면서 그들의 재능, 통찰력, 버릇, 특성과 함께 사용하셨다. 성령이 사람을 조종한 것이다. 그러므로 본문은 이 점에 있어서 명확하다. 즉 성경을 기록함에 있어서, 인간은 수동적이고 성령은 능동적이다”<sup>42)</sup>라고 바로 설명한다. 성경은 하나님에 관한 사람의 말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에 관한 그리고 사람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 영감에 관한 디모데후서 3:16과 베드로후서 1:20, 21을 종합해 보면 우리가 소유한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적인 내뿜는 호흡의 결과로 생성된 것이다. 하나님은 성경 저자들을 그의 성령으로 철저하게 100% 활용하시면서도 그들이 기록한 내용이 하나님이 기록하기를 원하는 내용으로 나타나도록 인도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기록된 성경은 100% 신적이면서도 100% 인적인 것이다. 이처럼 우리가 소유한 성경은 하나님의 지혜로 특별하게 만들어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것이다.

42) Kistemaker, *op. cit.*, 273; Green, *op. cit.*, 103.



### 3. 성경의 필요성

성경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성도들과 목사들에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성경은 교회의 존재와 활동을 설명하는데 중심적 역할을 한다. 목사가 되기 위해 신학대학원에 입학하면 여러 가지 분야의 신학을 배우는데 특히 조직신학 분야를 배울 때 제일 먼저 가르치는 과목이 조직신학 서론(성경론)이다. 그 이유는 모든 신학 작업이 성경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성경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의 우둔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혼란된 지식만 가중되고 참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된다.<sup>43)</sup> 성경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 수도 없으며,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또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무슨 일을 하실지 전혀 알 수 없다. 성경이 없으면 창조가 어떻게 되었는지, 죄가 어떻게 세상에 들어 왔는지, 하나님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세상의 마지막이 어떻게 정리될 것인지 전혀 알 수가 없다. 성경이 없으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의 십자가의 죽음이 무슨 의미인지, 그가 왜 부활체를 입고 부활하셔야 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 성경이 없으면 우리는 복음의 지식을 얻을 수 없으며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 수도 없고 영적인 삶을 유지할 수도 없다.<sup>44)</sup>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손에서 성경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기억에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완전히 지워버린다면 우리는 어떤 형편에 처하게 될까? 그렇게 되면 우리들은 선장 없는 선박을 타고 있는 사람들과 같고, 조종사 없는 비행기에 타고 있는 사람들과 같게 된다. 캄캄한 밤에 방향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과 같게 된다. 하나님은 이런 비참한 인생들을 구원하시고 바른 인생의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특별계시를 주셨다.

43)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1.6.1.(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67), 70.

44) Grudem, *Systematic Theology*, 116-120.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신 자연을 통해 자신을 나타내 주신다. 이를 자연계시 혹은 일반계시라고 부른다. 시편 기자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시 19:1)라고 말한 내용은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 자신을 나타내 주신 것을 증거하고 있다. 바울 사도도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 할지니라”(롬 1:20)고 말한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 자신을 계시해 주셨지만, 죄로 타락한 인간이 자연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극히 제한적인 것이다. 인간은 자연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와 그 능력을 알 수 있는 정도이다.<sup>45)</sup> 그것도 충분한 정도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요, 왜곡된 상태로 희미하게 알 수 있는 정도이다. 자연계시를 통해서만 인간의 타락,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교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신천 신지에 대한 내용을 알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을 어떻게 선택하시고, 또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그리고 신약의 하나님 백성인 교회를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는지를 자연계시 만으로는 알 길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계시를 통해 자신과 자신이 하시는 일을 계시해 주신 것이다. 특별 계시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심을 통해서(창 15:17; 출 3:2, 19:9; 시 18:10-16), 그의 사상과 뜻을 사람들에게 직접 전달하심으로(창 3:8-19; 신 13:1-6; 욥 2:28) 그리고 이적 등을 통해서(출 10:2; 요 2:11) 나타난다. 이런 특별 계시들은 성경 66권에 수록되어 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특별 계시로서의 성경은 다른 계시보다 더 우월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다. 그 이유는 성경계시가 구속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

45) Grudem, *Systematic Theology*, 123.

라 그 계시 형태 자체가 문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는 구속이 어떻게 성취되었으며 또 우리 개인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알게 된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통해 구속을 성취하시고 죄 문제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성경을 우리에게 주실 때 인간과 인간의 언어를 사용하여 특별한 방법으로 주셨다. 성경은 구속에 관해 인간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구원하는 믿음에 이를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sup>46)</sup> 성경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며 구원 얻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가르친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자신의 뜻과 사역을 오고 오는 세대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신 것이다(엡 3:3-4).

그러므로 성경은 다른 경전들과 그 성격이 다르다. 성경은 단순히 도덕률을 제시하는 그런 책이 아니다. 성경은 창조에서부터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서부터 신천신지에 이르는 하나님의 구속역사 진행과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으며 또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떤 소망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가르쳐 주는 책임을 알아야 한다.

#### 4. 성경의 충족성

우리들이 “성경의 충족성”을 논할 때 성경이 우리가 알고자 하는 모든 것을 말해준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크게 잘못된 생각이다. 성경은 그렇게 우스꽝스런 책이 아니다. 성경이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모든 주제를 말해줄 수 있다면, 우리는 즉시 모든 과학적인 연구나 다른 분야의 연구를 멈추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생각하는 마음

46) Grudem, *Systematic Theology*, 118.

과 기술을 주셔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서 계속적인 연구를 통해 새로운 것을 발견함으로 인류에게 유익이 될 수 있게 하셨다.

성경은 인간의 연구심에 대해서 그리고 인간의 연구심의 결과로 얻은 놀랄만한 성취에 대해서 언급하지만(욥 28장 참조), 우주여행에 관한 기술적인 문제나 심장이식 수술에 관한 기술과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 오늘날 엄청나게 빨리 발전하고 있는 전자분야에 대해서 성경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성경은 현대의 우리 삶에 관한 여러 분야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이다. 또한 한 청년이 누구와 결혼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도 성경에는 없다. 우리가 어느 동네에서 반드시 살아야 한다는 말도 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분야에 대해 성경이 침묵을 지킨다고 해서 성경의 충족성이 손상을 받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성경이 충족하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먼저 생각할 것은 성경의 충족성은 성경의 기록목적과 관계가 있다는 점이다. 성경은 성경의 주요 목적을 성취하는데 충족하다. 무엇보다도 성경은 하나님에 관한 책이다. 그루뎀(Grudem)이 정리한 성경의 충족성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성경의 충족성은 하나님이 구속역사의 각 단계마다 그의 백성이 소유하도록 의도하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포함하고 있었으며 또한 지금 우리가 구원을 받기위해, 하나님을 완전하게 신뢰하기 위해, 하나님을 완전하게 순종하기위해 필요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포함하고 있다는 뜻이다.”<sup>47)</sup>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에 관해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 알 필요가 있는 것들에 대해 모든 것을 이야기해준다.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시며, 어떤 분이시며, 무엇을 하신 분인지를 우리에게 전한다. 이 분야

---

47) Grudem, *Systematic Theology*, 127.: “The sufficiency of Scripture means that Scripture contained all the words of God he intended his people to have at each stage of redemptive history and that it now contains all the words of God we need for salvation, for trusting him perfectly, and for obeying him perfectly.” (italics original).

에 있어서 성경은 충분하고 넉넉하다. 그리고 성경은 사람과 구원에 관한 책이기도 하다. 성경은 사람의 영적 상태에 대해 정확하게 진술하고 있다. 인간이 어디에서 잘못되었으며, 왜 잘못되었는지를 말하고 그 잘못된 것을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는지를 제시해준다. 맥아더(MacArthur)는 “오직 성경’(Sola Scriptura)에 대한 종교개혁의 원리는 모든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최고의 권위를 가졌다는 뜻으로 성경의 권위를 이해하는 것이다. ‘오직 성경’은 단순히 말해서 우리들의 구원과 영적인 삶에 필요한 모든 진리가 성경 안에 확실하게 혹은 암묵적으로 가르쳐지고 있다는 것이다.”<sup>48)</sup>라고 바로 말한다. 성경은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도 잘 가르쳐준다. 이런 문제에 대해 성경은 우리의 노력이나 짐작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남겨놓지 않고 명백하고 충분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다. 맥아더는 “확실한 것은 필요한 모든 것이 성경 안에 있다는 것이다 - 그리고 우리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고전 4:6)고 금지되어 있다.”<sup>49)</sup>고 설명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의 충족성을 말할 때는 성경이 하나님에 관한 사항과 사람의 영적상태, 그리고 구원에 관한 교리적인 부분에 대해 분명하고 충분하게 가르치고 있다는 뜻이다. 적어도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하나님에 관해 우리들이 어떻게 믿어야 하며, 타락한 사람이 구원을 어떻게 얻을 수 있으며,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 충분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sup>50)</sup> 성경의 충족성은 성도들의 실제적인 삶과 관계되어 이해되어야 한다. 성경은 성도들의 삶을 위해 충분한

48) John F. MacArthur, Jr., “The Sufficiency of the Written Word,” *Sola Scriptura!* (Morgan: Soli Deo Gloria Publications, 1995), 165.

49) MacArthur, “The Sufficiency of the Written Word,” 167.

50)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6절 참조,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의 구원과 신앙과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에 관한 하나님의 뜻은 전부 성경에 분명하게 진술되어 있거나 조리 있고 필연적인 이치로 성경에서 연역할 수 있다.” 참고, 김혜성/남정숙 공역,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서울: 성림문화사, 1980), 16.

원리를 제공하고 있다. 이점에 있어서 성경의 충족성은 성경이 성도들의 삶의 모든 부분에 대해 모든 내용을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성경의 충족성은 성경이 성도들의 생활을 위해 필요한 일반적인 원리들을 빠짐없이 제공하고 있다고 믿는 것이다. 성도들이 어떤 특별한 형편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침묵을 지키지만, 그 특정한 형편을 위한 일반적인 원리는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일반적인 원리는 다른 많은 경우에도 적절하게 적용시킬 수 있는 원리이다. 세상의 기준들과 원리들은 변화하지만 성경에서 찾아진 일반적인 원리들은 결코 변화하지 않는다. 이런 일반적 원리들이 성도들의 삶을 위해 충족 할뿐만 아니라, 완전히 의존할 수 있는 원리들이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성경은 성도들의 실제적인 삶을 위해 충족한 것이다.

그런데 성경의 충족성은 성경의 최종성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현재의 성경이 최종적이라는 말은 현재의 성경에 어떤 새로운 계시가 첨가되어질 수 없다는 뜻이다. 현재의 성경에 새로운 계시가 계속 첨가되어질 수 있다면 현재의 성경은 최종성을 상실하며, 충족성 또한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성경 어디에서도 새로운 계시가 성경에 계속해서 첨가될 것이라는 암시를 찾을 수 없다. 오히려 성경은 성경 자체에서 어떤 것을 빼거나 어떤 것을 더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증거 한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계 22:18-19, 개역개정). 어떤 이들은 이 말씀이 계시록에만 해당된다고 해석하기도 한다. 이 구절이 계시록에만 해당하느냐 아니면 성경 전체에 해당하느냐에 대해서는 결정적인 결론을 내릴 수 없지만 계시

록이 성경의 마지막에 자리를 잡고 있으며, 계시록 22장의 내용은 예수님 재림 때에 설립될 신천신지를 묘사하고 있으며 또한 성경에 어떤 것을 더하거나 빼는 일을 금한 이 구절이 바로 신천신지를 묘사한 직후에 나타나며, 현재의 66권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 자신이시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요한계시록 22장18-19절의 내용을 전체 성경에 적용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 5. 성경의 권위

### (1) 구약의 권위

현재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39권의 구약이 권위 있는 구약정경으로 오래전부터 수납되어 왔다. 외경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약 39권을 정경으로 받는데 심각한 논란이 제기되지 않았다. 여기서 구약 39권의 권위에 대해 신구약 성경이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한다.

#### ① 구약의 증거

구약은 모세가 하나님의 대변자임을 분명히 한다. 모세오경 여러 곳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의 표현을 발견하게 된다(출 25:1; 30:11, 17, 22; 31:1; 32:9; 레 1:1; 4:1; 민 1:1; 2:1; 3:44). 모세가 율법 책을 기록했다는 증거는 구약의 여러 곳에서 찾을 수 있다(출 24:4; 34:27-28; 민 33:2; 신 31:22, 24). 그리고 여호수아는 모세에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후 모세가 기록한 모든 율법 책을 백성들에게 낭독해 주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수 8:31-35).

모세오경으로 알려진 모세의 율법 책이 유다의 왕들을 통해 계속 전



수되었다. 다윗은 구약 열왕기상 2장 3절을 통해 솔로몬에게 모세의 율법을 전수하면서 그 율법을 지킬 것을 부탁한다. 히스기야 왕은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고(왕하 18:6), 므낫세 왕은 “모세의 명한 모든 율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았으며(왕하 21:8-12), 요시아 왕은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왕하 23:25)하였고, 여호야다는 여호와와의 전(殿)의 직원을 세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대로 여호와께 번제를”드리도록 했다(대하 23:18). 여기 언급된 모세의 율법은 모두 모세오경을 가리킴에 틀림없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 갔을 때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의 율법에 대해 상기시킨다(겔 7:26; 단 9:11,13). 시편에서도 율법에 대해 자주 언급하고 있으며 특히 시편 119편은 율법이 자주 언급되기로 유명한 시편이다. 뿐만 아니라 대 선지서와 소 선지서 모두 율법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며 특히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는 “내중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말 4:4)고 이스라엘 백성을 권면한다.

이처럼 구약 전체의 흐름 속에서 모세오경이 하나님의 권위 있는 율법으로 받아들여진 증거를 찾을 수 있는 것이다. 모세오경의 경우뿐만 아니라 선지서의 경우도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으로 인정받는다. 선지자들은 서로의 권위를 인정하며 다른 선지자들의 예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임을 인정함으로 선지서들이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거 하고 있다(렘 28:8; 겔 38:17; 단 9:2; 속 1:4-6).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고 자신들이 예언하는 말씀은 자신의 말이 아니요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것임을 분명히 한다(민 16:28; 24:13; 왕상 12:33; 시 41:6-7).<sup>51)</sup>

51) Smith, *Systematic Theology*, Vol. One, 70-72.



## ② 신약의 증거

신약 성경에서 구약의 권위를 인정하는 표현은 예수님으로부터 나온다. 예수님은 구약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모세와 선지자” 혹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눅 24:44 참조)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구약 전체를 가리키신다. 예수님이 산상보훈 말씀 중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일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마 5:18, 개역개정)고 말씀하셨을 때 듣는 자들은 “율법”을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구약 39권을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하고 들었다. 그리고 신약성경에서 사용된 성경(그라페)이란 용어는 구약의 통일성을 강조하며 구약 전체를 가리키는 전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마 21:42; 22:29; 눅 4:21; 24:27,32,45; 요 2:22; 10:35등). 특히 성경 영감을 다룰 때 빼놓을 수 없는 구절인 디모데후서 3:16과 베드로후서 1:20-21의 경우, 이 두 구절에서 사용된 성경(그라페)은 일차적으로 구약 전체를 가리키고 있음이 분명하다.<sup>52)</sup>

이처럼 구약의 증거와 신약의 증거는 구약성경 39권이 영감 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의 신앙과 삶을 위해 규범이 되며 권위를 소유하고 있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 (2) 신약의 권위

구약성경 39권은 예수님 오시기 오래전에 정경으로서의 위치를 확실하게 굳히고 있었다. 예수님도 우리가 소유한 구약성경을 정경으로 생각했고 제자들도 똑같은 입장을 소유하고 있었다. 신약의 권위는 사실상 예수님으로부터 나온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성경의 권위에 대해 잘못된 견해를 소지하고 있거나 부적절한 견해를 소지하고

52) 디모데후서 3:16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라고 말함으로 “성경”(그라페)이 39권 구약 전체를 일차적으로 가리키고 또한 바울 사도가 그라페 앞에 정관사를 부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디모데후서가 기록되기 이전에 이미 기록된 일부 신약도 포함하고 있다고 사료된다.

있으면, 으레 그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복종과 헌신도 문제가 된다. 스토틀(Stott)는 “성경의 권위에 대한 믿음과 성경의 권위에 대한 복종은 예수님의 주님 되심에 대한 우리의 복종의 결과이다”<sup>53)</sup>라고 바로 정리한다.

우리가 신약의 권위를 생각할 때 비역사적인 관점에서나 초역사적인 관점에서 권위를 생각하지 않는다. 이 말씀은 신약 본문이 역사적인 책이면서도 우리를 위해 권위를 보유하고 있다는 뜻이다. 즉 우리들을 위한 권위는 신약성경자체인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신약본문 자체에 권위가 있는 것으로 생각할 때, 우리는 기록된 과거의 문서 자체에만 권위가 내재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 본문과 저자이신 하나님을 분리시켜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성경에 권위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 저자이시기 때문이다. 암스트롱(Armstrong)은 “성경의 권위는 인간의 탁월함이나 증거에서 발견되지 않는다. 성경의 권위는 모세, 바울, 베드로 안에서 발견되지 않는다. 성경의 권위는 주권적인 하나님 자신 안에 있다. 그의 인간 저자들을 통해 말씀을 뿜어내신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진술, 모든 교리, 모든 약속 그리고 모든 명령을 지지하신다”<sup>54)</sup>라고 설명한다. 칼빈주의 3대 신학자 중의 한 사람으로 인정받은 카이퍼(Abraham Kuyper)는 하나님의 법령들은 편재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속적인 뜻이며, 하나님은 모든 경우에 우리들의 삶의 과정을 결정하시고 신적인 권위로 지속적으로 우리를 속박하고 있다고 정리한다.<sup>55)</sup>

이처럼 본문과 저자를 분리시킬 수 없는 점이 성경과 다른 역사적 문서와의 차이이다. 성경의 권위를 연구할 때 보수주의자들은 특별한

53) John R. W. Stott, *The Authority of the Bible* (Downers Grove, Ill.: InterVarsity Press, 1974), 7.

54) John H. Armstrong, “The Authority of Scripture,” *Sola Scriptura!* (Morgan: Soli Deo Gloria Publications, 1995), 97–98.

55) Abraham Kuyper, *Calvinism: Six Stone Lectures* (Grand Rapids: Eerdmans, 1931), 114–115.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그 이유는 보수성향의 성도들이 성경을 생각할 때 하늘에서 푹 떨어진 하나님의 신탁처럼 취급하기 때문이다. 이런 태도는 성경에 가장 높은 영광을 돌리는 것 같지만 실상은 말의 표현일 뿐 성경을 정당하게 취급하지 못하는 태도인 것이다. 이런 태도는 신학적인 전제에 의해서나 이론적인 배경의 결과로 나타난 것인데 결국 성경을 비역사적인 안내서로 전락시키는 잘못을 범하는 것이다. 성경은 하늘에서 푹 떨어진 책이 아니다. 신약 성경은 역사적인 발전 과정을 통해 나타난 역사적인 문서들인 것이다. 그리고 그 역사적인 문서가 하나님을 저자로 하고 있기 때문에 권위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칼빈(Calvin)은 “우리는 인간의 이성, 판단, 혹은 추측보다도 더 높은 곳, 즉 성령의 비밀한 증거 안에서 우리들의 확신을 찾아야 한다”고 하나님이 성경의 저자임을 분명히 밝힌다.<sup>56)</sup>

성경의 계시적 성격은 역사적 성격을 초월하거나 떠나서 고려되어질 수 없고, 역사적 성경은 계시적 성경을 도외시하면서 이해되어질 수 없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이지만 하나님이 역사적인 모든 특성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계시인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생각할 때 역사적인 현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셨다고 생각해야 한다.

구속적인 행위 없이는 계시가 설 자리가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구속적 행위 없이는 계시는 공중에 달려있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보스(G. Vos)는 “계시는 구속과 서로 짜여 있기 때문에 구속을 생각하지 않으면 계시는 공중에 매달리게 된다”<sup>57)</sup>라고 구속적 행위와 말씀계시의 관계를 잘 설명하고 있다. 말씀계시는 그리스도의 구속적 사건과 연관되어 있고 특히 그리스도의 강림, 십자가 수난,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권위 있는 책이다.

56)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1, 7, 4

57) G. Vos, *Biblical Theology: Old and New Testaments* (Grand Rapids: Eerdmans, 1968), 24, 참조, 14-15, 124, 324-325.

## 마치는 말

지금까지 개혁주의 성경관이라는 주제 하에 일반적으로 논할 수 있는 성경의 정경성, 성경의 영감성, 성경의 필요성, 성경의 충족성, 성경의 권위 등 기초적인 부분을 다루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특별한 방법으로 주신 특별 계시요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따라서 성경은 성도들의 신앙과 생활의 규범이다. 성도는 규범 안에 있을 때 인간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다.